

2022년 6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o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김창숙	06. 05	[토요와이드] 한미일 외교장관 “북한 미사일 규탄”… 협상복귀 촉구 [뉴스17] 주 52시간제 유연화 움직임… “사용자 의견만 반영” 우려	
임윤주	06. 12	[뉴스포커스] ‘후덕’ 김정은 건강은?…한미일 외교 “北미사일 규탄” [뉴스포커스] BTS, 바이든 만나 ‘아시안 증오 범죄’ 논의	
김창숙	06. 19	[뉴스오늘 3부] 화물연대 파업 34% 참여… 물류 피해 확산 [출발600] 소통은 강화했지만 … 커지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	
안호림	06. 26	[뉴스리뷰] 누리호 내일 2차 발사 무산…센터 오작동 발견 [뉴스오늘]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수사 숨고르기 불가피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 · 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임기연장 성비고려 및 탁월한 비평으로 방송에 기여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활동	김창숙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018. 12. 27	-
활동	안호림	인천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2021. 01. 26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2 6/5(일)	김창숙	5월 29일 <오후 5시 뉴스>에서는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일률적이고 경직된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전하며, 정부가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핵심 이유로 꼽는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적용해 아직 제도 정착 초기 단계로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는 IT업계 등 많은 현장에선 초과근무가 여전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실상 근로시간을 다시 늘리는 논의라는 지적에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세훈 화성노조 IT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포괄임금 계약으로 수당 자체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 노동시간 개선이 잘 안되는 현실과 노동조합 없는 곳은 직원 모르게 사용자 뜻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기자는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여전히 200시간 넘게 더 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지탱해 오던 산업 구조를 개선해 보호자 시작된 제도를 손보기 위해선 실제 영향을 받는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움직임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합니다.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하는데, 앞의 보도처럼 양 측의 입장을 균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현안에 대한 관점을 노,사 어느 쪽에 치우침 없이 보도해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있게 전달하는 보도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견이 존재하는 이슈의 경우 주체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6/12(일)	임윤주	5월 30일 오후 6시에 방영된 <뉴스워치>내 그래픽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라는 이름이 지어진 1395년 이후 628년 만에 새로운 행정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자치권 보장 범위가 확대되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지역 발전을 바라는 강원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고 앵커는 전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 건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 이후 세 번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가 공약한 사안으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특별자치도 지정 전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장 궁금한 부분일텐데요, 산업 분야 자치권, 행정기관 및 정원 자율권, 재정 특례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여주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픽 뉴스로 간단하게만 요약되어 아쉬웠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받게 된 배경이나, 먼저 지정된 제주와 세종과의 차이점 등이 전달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계기로 '특별자치단체'에 대해 그래픽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6월 출범'이라는 기사와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628년 만의 대전환 계기'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도 내보냈습니다. 다만, 먼저 특별자치단체가 된 제주·세종과의 차이점을 깊이 있게 짚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 6/19(일)	김창숙	6월 12일 오후 6시 <일요와이드>에서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로 인해 연쇄적 섰다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포스코와 한국타이어는 물량 출하량이 급격히 줄었고, 한일시멘트, 한	파업 현장 상황을 취재하다 보면 노조의 파업 화면이 주를 이루면서 자칫 노조의 입장만 부각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치우침 없

		라시멘트 등 시멘트 업계도 피해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멘트 업계의 피해가 레미콘, 나아가 건설업계의 연쇄적인 섀도우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미 일부 레미콘 업체는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레미콘 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이 건설 현장 올스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류의 핵심인 항만 쪽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임을 짚으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의 경우 지난 10일 반출입 물량이 평소의 1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추진' 카드를 들고 교섭에 나서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 시점 전면 폐지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합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행태를 보면, 파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강조하는 보도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파업이든 피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발생한, 혹은 발생 가능한 파업의 부정적인 결과만을 강조하다 보면, 노동자들에게는 파업의 이유를 막론하고 조속히 파업을 마무리하라는 압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도행태는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노동환경이나 조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언론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부정적인 결과를 부각하는 문제점은 자주 지적되어 왔지만, 잘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라도 과도하게 피해 상황을 강조하는 보도보다는 파업 원인과 이해당사자들의 주장들도 균형있게 전달해 노동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균형감 있게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6/26(일)	안호림	19일 오전 8시<일요와이드>에서는 누리호 재발사가 21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재발사 성공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점검했습니다. 기사는 누리호가 21로 재발사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첫 번째로 날씨를	이번 누리호 2차 발사 당일 아침부터 자정 무렵까지 10차례의 전문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2인이나 1인이 앵커와 문답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기자와 전문

		지목했습니다. 누리호가 좁고 길면서 무겁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싸는 강풍이 주요 변수가 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낙뢰와 두꺼운 구름층도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장맛비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부품 결합 가능성입니다. 누리호를 구성하는 총 37만여 개의 부품 모두가 제때 제 성능으로 내줘야 발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개발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해 100% 문제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누리호 2차 발사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특히 누리호는 앞선 나로호에서의 핵심 1단 엔진인 러시아제 1단 엔진을 사용한 것과 달리 대부분의 주요 구성품을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하여 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첫 국산 우주로켓입니다. 연합뉴스TV도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서 발사준비단계부터 연일 속보를 쏟아내며 보도하였습니다. 19일 <일요와이드>에서는 단순한 사실보도에 그치지 않고, 재발사 성공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를 정리,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차 발사가 연기되었던 16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를 초청하여 주요 의문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필요한 분야인만큼 시청자들이 궁금한 점도 많을 것인데, 인터뷰를 통해 많은 의문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 방식이 시청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포맷인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들이 직접 취재, 정리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각종 그래픽을 활용한 해설기사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가 함께 출연해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픽도 용어나 발사 단계 등을 설명하는 가로형 일반 CG와 세로형 L바 등으로 준비해 대담에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대형 이벤트가 벌어질 경우 대담 포맷 개선이나 해설 기사 추가도 검토하겠습니다.
--	--	--	--

[불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2. 6. 05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4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5월 2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에 붙인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결의안이 무산되자, 바로 다음 날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발표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외교장관들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5월 28일 오후 6시 <토요와이드>에서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5월 25일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5월 28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작년 9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지역과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북한의 협상 복귀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미일 외교장관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코로나 확산 등으로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촉구하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기자는 3개국 외교장관이 회담 결과물이 아니라 공동성명 형태만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공조가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전했습니다. 5월 29일 오후 6시 <일요와이드>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앞으로 예정된 한미일의 연쇄 외교전 일정을 짚었습니다. 한미일 연쇄 협의는 6월 3일 서울에서 열리는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서 출발하는데,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길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대북 대응에 머리를 맞닿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전은 6월 중순 외교 차관협의를 거쳐 한미·한일 외교 장관회담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난 뒤, 돌아오는 길에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회담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한미일 공조는 국방 분야에서도 이뤄지는데,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상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하며, 현재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막판에 성사될 지가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일 릴레이 외교는 6월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 회의에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며,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자회의이지만 윤 대통령 취임과 북핵 위기를 계기로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등이 악식 형태라도 개최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의 기초가 강경하게 바뀐 가운데, 한미일 공조로 대북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의 도발을 저지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미일 공조만으로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자칫 우리나라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악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들을 담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실용적인 대북정책과 영리한 외교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정된 외교전에 앞서 국익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잘 준비해야 할텐데요, 연합뉴스TV가 관련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실리외교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9일 <오후 8시 뉴스>에서 여야는 올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첫 회동 불발 후 다시 물밑 협상을 이어간 양당 원내대표는 각각 간담회를 열어 합의 사실을 알리고 상반된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29일 밤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선 추후 법 개정 등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급 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 근거 법이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중앙정부 기준, 당초보다 2조 6천억원 늘어난 39조원대로 여야는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하한액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의 매출액 기준 역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격리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 1천억원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5월 30일부터 바로 지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날인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보여 다행이지만, 한편에서는 추경으로 인해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5%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30일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사이에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데, 스트레이트 뉴스다 보니 각 이슈가 개별적으로 전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파생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슈간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적절한 경제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5월 29일 <오후 5시 뉴스>에서는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일률적이고 경직된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전하며, 정부가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핵심 이유로 꼽는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적용해 아직 제도 정착 초기 단계로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는 IT업계 등 많은 현장에선 초과근무가 여전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실상 근로시간을 다시 늘리는 논의라는 지적에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세훈 화성노조 IT위원장도 인터뷰를 통해 포괄임금 계약으로 수당 자체가 지급이 안 된다 보니 노동시간 개선이 잘 안되는 현실과 노동조합 없는 곳은 직원 모르게 사용자 뜻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기자는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여전히 200시간 넘게 더 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지탱해 오던 산업 구조를 개선해 보고자 시작된 제도를 손보기 위해선 실제 영향을 받는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움직임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첨예합니다.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하는데, 앞의 보도처럼 양 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전달하는 보도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견이 존재하는 이슈의 경우 주체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2. 6. 12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55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 기간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이슈에 많은 관심이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하고 유익한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먼저 최근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5월 30일 오전 10시에 방송된 <뉴스포커스>에서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코로나 상황,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뉴스포커스>에서는 먼저 현재 북한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이동 통제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식량을 구하지 못한 어려움이 더 크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동 통제는 두 달간 이어질 전망으로, 향후 식량 문제는 더 커질 뿐 아니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조한범 연구위원은, 작년 대비 체중이 크게 증가하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는 등의 모습이, 통치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집권 10년 동안 국방력 외에는 큰 업적이 없었던 가운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통치력에 대한 압박이 커졌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압박의 원인 중 하나로,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보다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정치적 성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사일 발사의 경우 비교적 예측이 쉬우나, 핵실험은 생각보다 그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관련 정보 역시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대비가 필요하나 이러한 기술적 측면보다는, 북한 자체가 핵실험을 주변 국가 및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의 상당 부분 역시 미국을 향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사일 사정거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일본 역시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례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3국 외교장관이 대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조한범 연구위원은 3국의 공조 강화와 강경한 대북 제재에 대한 변함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 외, 미국의 추가 제재와 그 효용성,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뉴스는 최근 북한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거의 모든 이슈가 다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들의 적절한 질문 및 진행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답변이 이어져, 북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처럼 다양하고 중요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뉴스 헤드라인이 이를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해당 뉴스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보도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월 31일 저녁 9시 <뉴스리뷰>에서는 북한의 가뭄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를, 6월 2일 오후 1시

<뉴스센터13>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5월 31일 저녁 9시 <뉴스리뷰>에서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식량 외부 도입량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심각한 수준의 가뭄을 겪고 있어 총 곡물 생산량이 감소해 식량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2일 오후 1시 <뉴스센터13>을 살펴보면, 북한이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발열 환자 수를 그래프로 보여주었는데요. 북한 측 발표에 따르면, 39만 2천여명대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0만명대 밑으로 떨어진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측 발표는 북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등 통계 수치를 발표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WHO 및 국내 정보 당국의 해석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및 북한 측의 발표 통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4일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언급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뉴스 역시 연합뉴스TV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한편,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 입장일텐데요. 특히 북한 뉴스의 경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길이 없고 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앞서 살펴본 <뉴스포커스>와 같이 전문가 의견을 통해, 해당 이슈들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라는 이름에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라고 불러야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변화하는지 5월 30일 <뉴스워치>내 그래픽 뉴스에서 정리해주었습니다. 5월 30일 오후 6시에 방영된 <뉴스워치>내 그래픽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라는 이름이 지어진 1395년 이후 628년만에 새로운 행정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자치권 보장 범위가 확대되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지역 발전을 바라는 강원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고 앵커는 전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 건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 이후 세 번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가 공약한 사안으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특별자치도 지정 전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장 궁금한 부분일텐데요, 산업 분야 자치권, 행정기관 및 정원 자율권, 재정 특례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여주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픽 뉴스로 간단하게만 요약되어 아쉬웠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받게 된 배경이나, 먼저 지정된 제주와 세종과의 차이점 등이 전달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미국 현지 시간 5월 31일, BTS가 미국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아시아인 증오 범죄 등 차별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만남이 있기 전, 연합뉴스TV에서는 5월 31일 오전 10시 <뉴스포커스>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김성수 문화 평론가와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BTS에 대한 미국 백악관의 초청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미국 백악관에서 대중음악 그룹이 단독으로 초청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미국 백악관이, 지난해 유명 여성 가수를 초청하여 여성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과 같이, BTS의 초청은 그 초청 자체로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초청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BTS를 초청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시아인 증오 범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아시아인 증오 범죄는 2019년 대비

300%나 증가할 만큼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오 범죄 원인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이민자에게로 몰린 혐오 정서 증가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백인우월주의를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시아 대상 범죄율이 더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외, 문화 평론가와 함께 노인, 여성 등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범죄 인식, 향후 BTS가 전하는 메시지의 영향력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현재 아시아 대상 중오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설명되었는데요, 범죄 발생 비율 그래프와 실제 사건 영상 등이 함께 제공되어 그 심각성이 더 잘 전달되었습니다. BTS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BTS의 백악관 초청이라는 부분을 넘어 아시아 중오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진중하게 나누게 되어 의미 있는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2. 6. 19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55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6월 7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6월 12일까지 정부와 화물연대가 4차례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14일 5차 협상에서 합의에 성공하며 8일만에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물류운송뿐만 아니라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뤘는데, 연합뉴스TV에서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류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전한 6월 11일 오전 9시 <뉴스오늘>의 보도내용입니다. 기사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물류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파업 4일 차인 10일 기준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2만 2천여명 가운데 34%인 7,56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 150여곳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항만별 화물 물동량은 평상시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부산항과 인천항 등 일부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전국 레미콘공장의 60% 가량이 멈춰 섰고, 각종 원자재 공급 차질로 인해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2일 <오후 2시 뉴스>에서는 경제계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여파인 12일 현재,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대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31개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며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지금은 일방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6월 12일 오후 6시 <일요와이드>에서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로 인해 연쇄적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포스코와 한국타이어는 물량 출하량이 급격히 줄었고, 한일시멘트, 한리시멘트 등 시멘트 업계도 피해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멘트 업계의 피해가 레미콘, 나아가 건설업계의 연쇄적인 셧다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미 일부 레미콘 업체는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레미콘 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이 건설 현장 울스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류의 핵심인 항만 쪽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임을 짚으며, 외항 내륙 컨테이너 기지의 경우 지난 10일 반출입 물량이 평소의 1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추진’ 카드를 들고 교섭에 나서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 시점 전면 폐지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합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행태를 보면, 파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강조하는

보도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파업이든 피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발생한, 혹은 발생할 파업의 부정적인 결과만을 강조하다 보면, 노동자들에게는 파업의 이유를 막론하고 조속히 파업을 마무리하라는 압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도행태는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노동환경이나 조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언론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부정적인 결과를 부각하는 문제점은 자주 지적되어 왔지만, 잘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라도 과도하게 피해 상황을 강조하는 보도보다는 파업 원인과 이해당사자들의 주장들도 균형있게 전달해 노동 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0일 오전 6시 <출발600>에서 주요 요직을 검사 출신으로 채운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취임 한 달 동안, 윤 대통령을 향한 가장 큰 비판은 인사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는 장·차관급 7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명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실의 인사·총무 등을 담당하는 주요 요직 모두 전직 검찰 출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에서 소통령이라며 문제 삼은 한동훈 장관 임명 때부터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특히 여대 검찰 출신이 맡은 전례가 없는 국가보훈처장, 금감원장 자리까지 검찰 출신이 차지하면서, 편중 인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이같은 인사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내각 구성 완료 역시 윤 대통령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앞서 아바한스 논란 속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후임으로 지명한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역시 음주운전과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짚었습니다. 6월 12일 <오후 3시 뉴스>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 “너무 능력주의에 휩싸이다 보면 다양성이 가진 힘을 간과하기 쉽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의원은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다양해야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여러 리스크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차기 당권 도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지역 조직들을 만들어나가는 데 온 노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윤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도어스테핑을 통해 소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국민들과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는 보도들도 많았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검찰 편중 인사 지적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하는 이미지와는 달리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는 야권의 목소리, 또는 지나친 능력주의 위주의 인사로 인해 다양성의 힘이 간과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의견 등도 균형있게 담아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를 두고 여러 이견들이 존재하는데요, 여러 의견을 균형있게 전달하는 동시에 인사 검증과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언론의 역할을 연합뉴스TV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 11일 <오후 1시 뉴스>에서는 매일 넘쳐나는 현수막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기사는 재활용업체 공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현수막을 보여주며, 매주 새로운 폐현수막이 들어와 공장은 빌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현수막이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는데, 이곳에서 나무 막대와 끈을 분리해 재활용 작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활용 용도에 맞춘 규격으로 정리된 현수막은 예코백, 쓰레기 수거용 마대 등으로 재탄생하는데, 구청부터 초등학교, 도서관 등 다양한 곳에서 저마다 다르게 쓰일 물품을 의뢰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약 35만 장인데, 특히 선거철 현수막이 문제라며 이번 지방선거에 쓰인 현수막만 약 13만 장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활용업체의 재활용 수를 포함하면 서울시는 재활

용률이 70%를 넘는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당장 현수막 제작을 줄이기 어렵다면, 현재로선 재활용을 늘리는 게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청자들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문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지만, 그 뒷처리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지 못한 폐현수막의 문제점을 잘 짚어준 보도였습니다. 문제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앞으로도 시청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환경문제를 발굴하고 보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호림 시청자평가원(22. 6. 26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55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법원은 '산업부 블랙리스트'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 여야는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각 인선부터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까지 각종 이슈에서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4시[뉴스오늘]에서는 백운규 장관 구속영장 기각 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서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의 수사 속도가 늦춰지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도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백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백 전 장관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검찰이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보복수사 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뉴스1번지]에서는 여야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를 초청하여 백 전 장관 구속,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간의 다툼과 그리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의 갈등과 정치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백운규 전 장관 구속과 관련된 여야간 대립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이러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진영 교수는 영장 기각은 법원이 구속까지 하며 무리한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교체 때 마다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력이 있어왔는데, 이를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정상적인가하는 근본적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이번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수사를 지연시켜서 지금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보복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산업부 블랙리스트'의혹과 관련해서는 기관장 교체 자체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적 행위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하지만, 이미 5년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박근혜 정권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날발하며 조사를 진행할 때의 양당의 입장이 뒤바뀐 것이라며, 야당 주장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진영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수사의 주체는 문재인 정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정권이 출범한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야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회 원구성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2017년과 2018년, 임기가 남은 산업부 산하 열세개 기관장의 사표를 요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식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다음날인 16일에는 <뉴스1번지>와 <뉴스프라임>에서 여야의 입장을 대변하는 두 패널의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이후에도 연일 계속해서 비슷한 포맷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이슈는 여야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다른데다, 아직 수

사가 진행중인 사건이어서 판단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와 같이 정파에 따라 첨예하게 입장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준과 논점들을 사전에 정리, 제시해서 시청자에게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가 양 패널간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슈의 쟁점들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단순한 질문자의 역할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경이 2020년 9월 서해 북한 해역에서 해양수상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 기존의 월북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갑작스레 기존의 판단과 180도 다른 결론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는 16일 오후 8시에 방송된 <뉴스리뷰>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인천해양경찰서장의 회견모습을 보여주며 해경이 해양수상부 공무원 이모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표는 해경이 군 당국의 첩보와 이씨의 도박 빚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약 2년전에 내린 결론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사는 국방부도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이 다시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해 시신을 불태운 정황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해경 발표에 맞춰 대통령실도 유가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실이 낸 항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한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는 이어서 안보실은 유족과 연례해 명예회복 추진을 약속했으며,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는데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정부 청와대 안보실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열람할 수 없는데요, 기사는 대통령실이 소송을 통해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19일 [오후 3시뉴스]에서는 여야의 엇갈린 입장과 갈등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국민의힘이 연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SNS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서해 피격 공무원 아들의 외침 앞에 사죄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권대표는 민주당은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 자신과 북한에 대한선 예외를 둔다며 '북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신 색깔론적 접근"이라고 일축했다고 전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야당 압박의 의도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우 위원장은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는 정략적 공세를 거두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TV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뉴스1번지>와 <뉴스프라임>에서 백운규 전 장관의 사건과 같이 다뤘습니다. 앞의 이슈와 마찬가지로 여야의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정치적인 해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 또한 정치적 파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9일 기사에서는 여야의 입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의 경우, 여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주장에 대한 논거까지 제시된 반면, 연합뉴스TV 기사는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측의 입장 차이만 두드러져 보일 뿐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사를 압축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16일로 예정되었던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센서 오작동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15일 오후 8시 <뉴스리뷰>에서는 누리호 2차 발사 무산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발사대에 올랐던 누리호가 산화제 탱크 내부 센서의 오작동이 발견되어 반나절만에 다시 내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산화제 양을 표시해주는 센서가 특정값에 고정돼있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립 상태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해 결국 누리호를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 분석에 들어갔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사는 2차 발사 예비기간인 23일 안에 발사일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다음주까지도 원인을 찾지 못하면 발사가 몇달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연구자들이 최대한 빨리 문제의 원인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19일 오전 8시<일요와이드>에서는 누리호 재발

사가 21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재발사 성공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점검했습니다. 기사는 누리호가 21로 재발사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첫 번째로 날씨를 지목했습니다. 누리호가 좁고 길면서 무겁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싸는 강풍이 주요 변수가 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낙뢰와 두꺼운 구름층도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장맛비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부품 결함 가능성입니다. 누리호를 구성하는 총 37만여 개의 부품 모두가 제때 제 성능으로 내줘야 발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개발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해 100% 문제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누리호 2차 발사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특히 누리호는 앞선 나로호에서의 핵심 1단 엔진인 러시아제 1단 엔진을 사용한 것과 달리 대부분의 주요 구성품을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하여 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첫 국산 우주로켓입니다. 연합뉴스TV도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서 발사준비단계부터 연일 속보를 쏟아내며 보도하였습니다. 19일 <일요와이드>에서는 단순한 사실보도에 그치지 않고, 재발사 성공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를 정리,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차 발사가 연기되었던 16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를 초청하여 주요 의문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필요한 분야인만큼 시청자들이 궁금한 점도 많을 것인데, 인터뷰를 통해 많은 의문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 방식이 시청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포맷인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들이 직접 취재, 정리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각종 그래픽을 활용한 해설기사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2년 6월 5일 04시/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2년 6월 12일 04시/ 임은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2년 6월 19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2년 6월 26일 04시 / 안호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